

## ASEAN 지역안보협력 미래 양상

● 曹健鉉 / 國防科學研究所  
선임연구원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事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域外の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989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폭넓은 아세안 군사 및 안보협력을 지향한 과제 및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윙칸 쟁」 외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폭넓은 아세안 군사 및 안보협력이 당분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세안은 군사 또는 안보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각 회원국사이의 군사협력은 ASEAN 구조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의 예측적인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윙」 외무장관이 연설하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에 있는 Siabu에 합동 공중무기사격장을 개설하고, 싱가포르 군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지상훈련장을 제공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 미래의 아세안 지역안보협력은 국지적인 기반위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그 형태는 쌍무적 또는 기껏해야 3개국 협력이 될 것 같다.

- 최근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양해각서의 예에서 보듯이 아세안 창설 후 20년만에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볼때 군사협력의 도모 및 발전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안보·군사협력은 정상적으로 지역협정 없이 아세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번째 추론이라고 할수 있는 「현실적인 사고」에서는 아세안이 군사적 동맹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어떤 전문가는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화(SEATOization)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태국의 차티카이 춘하반 수상이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란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차이, 분쟁, 대결에 관해 언급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듯이, 지역적인 군사협정은 이제 오늘날 시대 흐름의 일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인 동남아시아의 변화는 나타날 시나리오가 확실하고 힘의 균형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국내 안보에 대한 도전은 기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셀 것이다. 또한 안보에 대한 기반(특히 정치적 및 경제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수 있다.

ASEAN 국가의 경우 분쟁과 폭력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자기만족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경계를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어떤 아세안 정책입안자는 주장하고 있다.

高價의 무기를 구입하고 무기시스템에서의 기술적인 비약을 따라 잡으려는 어려움, 국가 안보 및 방위(계속해서 지역안보)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제약이 아세안 연합 각국이 발전시켜야될 전제조건이라면 지역안보협력의 강조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안보협력은 어떤 형태일까? 문제점, 제약조건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어떤것이 성취된 다음에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등 지역안보협력의 미래양상에 대해 언급할 때 과거 및 현재의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에 있을수 있는 시나리오를 동시에 기대하면서 자유롭게 가능성을 제시할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핵심이 ASEAN에 있지만 아세안이 그 일부로 되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가 정치, 경제 및 문화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는 공동단체이며, 단일화되고 응집력있는 실체인 하나의 國家群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리학적인 이점을 갖는 관련국가들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아세안이 동남아시아의 일부이고, 동남아시아라는 명칭이 친밀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이 지역의 다양함은 다음의 2가지 상호관련된 지정학적 요인으로 설명될수 있다.

1) 섬나라(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 對 본토 또는 대륙 동남아시아(버마, 태국 및 인도차이나) 등으로 나눌수 있고

2) 공산국가(인도차이나 국가) 對 非공산권 동남아시아(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로 분류될수 있다.

## 지역안보와 군사협력의 의미

군사협력이 군대와 관련된 특별관련활동을 의미하지만 안보협력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며, 비군사적 그리고 심지어는 知的 정보의 분배 및 높은 차원의 정부간 교환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때 안보협력은 결국 그 나라의 생존과 관련된 반면 군사협력은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의 군사안보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지는 않고 있다.

협력의 의미는 어떤 형태, 태도, 범위 또는 이 3가지의 조합도 될수 있으며 비공식협정으로부터 정식 조약이나 협정으로까지, 쌍무적인 면에서 다수 국가가 연관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된 지역적인 관계여부, 일반적인 단순 정보교환이나 장교훈련으로부터 합동작전으로, 상호토론으로부터 공동방위정책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게 뻗치고 있다. 공동방위정책은 일반교리, 상호작전성 심지어는 상호 무기구입 및 장비의 공동생산까지 포함한다.

이와같이 협력의 여러 의미가 언급되고 있지만, NATO와 같이 뿌리깊은 군사동맹에서도 공동의 적에 대한 공동방위라는 명제의 본질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식협정이 시행될 때도 협력의 본질은 반드시 형식이나 修辭學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협력은 최소이며 부분적이고 상징적인 한편으로 여러분야 및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미치게 된다.

Charan Kullavanijana 육군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안보협력은 공감대를 형성한 나라사이의 정치적 협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국가적, 정치적 중요성은 두나라 이상의 국가에서 군사적 또는 안보협력의 발생여부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협력은 공동목표 및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사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비공산국가와 공산국가와 상호협력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과 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결론에 예외가 되지만, 중국이 소련이나 공산권의 주요 회원국이 아니며 이제는 더 이상 파괴적이고 호전적인 국가가 아닌 변화된 환경조건으로 인해, 공산권-비공산권과의 교류가 상당한 부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태국 및 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심지어 공산권-비공산권 국가간의 방산장비 조달이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1984~85년의 소련 군용 중헬기 구입실패는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는 일례인데,

이는 공산국 장비구입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Charan 육군 소장은 「공감대 형성」을 공동협력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며 안보협력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는 또 몇몇 아세안국가가 정식 안보협력의 발전을 기피하는 이유를 아세안 국가 자신들의 위협인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적으로부터의 침입위협이 긴박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잠재적인 외부위협을 격퇴시키거나 새로 독립된 국가의 생존이나 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저지가 인식될 경우와 같은 위기가 일어나면, 아마도 대부분은 안보/군사협력이 긴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전자의 예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이며, 후자의 경우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영국·호주·뉴질랜드 사이의 5개국 방위협정(FPDA)이다.

### 아세안 군사협력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세안은 군사조약이 아니며 최소한 단어에 정식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지역협력의 사회적·경제적 목표의 공유라는 말과 관련하여 아세안국가는 본질적으로 비공산국가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들이 처해 있는 불안한 환경을 주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라는 복잡한 사회-정치학적 다양함과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결국 아세안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대치 여파로 1967년에 구성되었으며,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의 월남전쟁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 조직은 70년대 중반 사이공의 함락과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미군철수 및 1978년 월남

의 캄보디아 점령과 더불어 활성화되었다. 1978년 이후 아세안은 잠재력있는 월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외교적노력의 중심이 되었고 프놈펜의 하노이 지원정부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해외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CGDK)를 지원하고 있었다.

금년에는 캄보디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하며, 캄보디아 문제 해결후에는 동남아시아 안보집단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힘의 경쟁을 제거시켜주고, 군사적 마찰을 없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 확실시된다.

캄보디아문제는 비공산권 동남아시아 안보에 대한 월남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아세안의 안보와 방어역량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해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대신에 아세안 연합은 하노이의 하수인격 역할을 하는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및 외교적 전선에서의 하노이 및 하노이 동맹국들과 대치하기로 결정한 한편, 아시아의 전위국으로서의 태국의 요구를 주목하게 되었다.

브루나이군 자체훈련에서 7.62밀리 범용 기관총이 발사되고 있다  
영국은 1979년 영국과 브루나이의 방위협정하에 이 강국인 브루나이에 대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사이공함락후 아세안국가들은 안보 및 군사협력을 하게 되었으며 군사협력은 주로 쌍무적인 차원에서, 안보협력은 정치 및 외교계에서의 일치된 지역활동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졌다.

수년간 아세안에서의 방위분야 전문가 사이에서 끊임없는 교류가 진행되어 왔으며, 아세안 조직내의 원활한 교류와 같은 안보협력은 지배계층및 행정부문에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군사/안보적 事案에서는 아세안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었다.

Weatherbee 교수에 의하면 아세안 군사협력 양상을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군과 공군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만이 Kekar Malindo 훈련에서 쌍무적인 육군 야전훈련의 일반모형을 개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체결된 쌍무협정은 잠재적인 한 쌍으로 표현된 비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군사협력의 유효성 및 성취에 관한 평가는 자료의 획득부족과 민감성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놀랍게도 안보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협력 활동의 효과에 대해 다투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지상군 협력의 경우 Bilveer Singh은 쌍무적인 문제 및 자국의 정치적 민감성과 같은 제한조건으로 인해 공군 및 해군 훈련과 통합에 비해 지상군을 가장 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해상안보협력을 볼때 Ahmad Ramli Nor는 해상안보가 모든 아세안국가에 중요한 반면 해상경계수역 및 확장경계수역에 대한 영토주장과 같은 정치적 장애물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지나해(태국만 제외)의 해상경계수역 15개중 12개가 분쟁중이며, 이 중 2개는 합의를 보았고 나머지 1개는 협정을 통해 공동개발하기로 되었다.

이러한 분쟁은 非아세안 회원국과도 관련되는데, Ahmad는 4개 협력분야인 통제지역, 균형력 고려, 공통 군수분야, 공통 교리 등은 협력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며, 훈련시 해군 상호간 협력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공군 협력분야를 살펴볼때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 제한 요소로서 교리의 相異(이를테면 공중방위와 전진방위 사이) 및 항공산업발전의 격차, 기술적 파생물등을 들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협력은 쌍무적인 훈련이상을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떨어져나가 정비유지에 완전한 격차가 남게되어 전장수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건데 아세안 군사/안보협력은 점진적이고 쌍무적인 훈련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정치적 요인 및 아세안 국가 나름대로의 위협 및 방어정책의 평가라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지장을 받게 된다.

국가적 의지가 일치된 곳(즉 태국 및 말레

이지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사이의 현존하는 국경분쟁위원회처럼)은 협력이 잘 진행되고있는 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방위의 불가분성이 두나라의 군사 및 정치분야 전문가들의 일치된 사고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안보에서의 완전한 협력이 항상 이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Likhit Dhiravegin은 아세안에서의 지역적 방위의 어려움을 「피할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 非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

아세안이 군사적 협정이 아니므로 아세안 각국이 비아세안 회원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5개국 방위협정의 당사국이다.

필리핀과 태국은 미국과 마닐라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협정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종전에는 소련 및 중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Try Sutrisno 육군 총사령관이 Winston 싱가포르 총사령관과 만나고 있다. 양국간 군사협력은 이제까지는 긴밀하지 않았다



Weatherbee 교수는 비회원 당사국간의 군사 훈련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군사훈련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1988년 9월 5개국 방위협정국의 「Lima Bersatu 88」 훈련에서는 5개국으로부터 1백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였으나, 태국-미국간의 「Cobra Gold」 훈련에서는 어떤 쌍무적인 아세안 국가간의 군사훈련보다도 더 큰 역지력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제휴는 비회원국과 군사훈련을 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그러한 국가와 동지애를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요인이 훨씬 더 크게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1988년 8월 영국과 브루나이 사이에 있었던 「Seria Kawan」 군사훈련은 연습훈련에 불과했지만, 어느 한 당사국에 예측못할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 브루나이 군대가 어떠한 대내외적 위협도 제지할수 있는 신뢰성과 능력
- 1979년 영국-브루나이 방위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은 브루나이에 대한 영국의 공약이행의 충실성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브루나이의 경우 영국과의 연계는 1984년 독립이후 약육강식의 세계속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수 있는 자국의 방위 및 신생 국군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5개국 방위조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양국은 남지나해 및 말라카해협의 항로를 躡制(straddle) 할수 있는 천연적인 요충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대륙국과 島嶼국가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1971년에 출범한 5개국 방위조약은 초기에는 반란진압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의 대외방위로 간주된다.

협의적인 기구로서 5개국 방위협정은 정식 군사조약이 아니며, 상존하는 난제중의 하나는 5개 회원국 모두의 성실성에 있고 이는 물론 정치적인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방위분야에서 그들의 자주국방체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영국의 유럽에 대한 관심과 1997년으로 예정된 홍콩반환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군이 철수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 5개국 방위협정은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치이다.

「평화, 자유 및 중립시대(ZOPFAN)」 창설의 독자적 추진은 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치일 것이다. 더욱이 5개국 방위협정은 고유의 군사 및 지정학적 제한이 있다. 이들외의 3국은 만일의 사태발생시, 특히 Butterworth로부터 호주 공군(RAAF) Mirage III 대대가 철수하고난후 신속하게 대응할수 없다.

5개국 방위조약의 골격인 정치적, 군사적 통합 항공방위시스템(IADS)은 「북-남 축선 방위」를 담당함으로써 Sabah 및 Sarawak의 공중방위 및 보호를 등한시하게 된다.

一笑一少一怒一老

순진한 아들

어떤 가족이 모처럼 동반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보니 음식이 많이 남게 되어 그냥 두고 가기가 아까웠다. 궁리끝에 웨이터를 불러, 집에 있는 개에게 갖다주고 싶으니 먹다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옆에있던 어린 아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와! 아빠. 우리 개 살거야?』





태국의 중국제 85형 병력수송장갑차(APC)가 야전배치에 앞서 숙달훈련을 하고 있다  
태국은 ASEAN 회원국들이 놀랄 정도로 상당한 양의 중국제 APC 및 포병용 대포를 주문하였다

한편 5개국 방위협정은 실무차원의 방위협력기틀을 제공해주며, 남지나해 초계용 호주 공군 해상정찰항공기의 투입 및 훈련, 장비보완에 있어서 상당한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5개국 방위협정은 역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안보의 불가분성이 주요요인이 되어 방위분야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관계를 강화시켰다.

비아세안 협력국과의 아세안 군사협력의 다양성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태국과 중국과의 관계이다. 중국은 태국에 대한 전차, 장갑차(APC) 및 포병장비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금년초 병력수송장갑차를 생산하는 중국-태국의 합작기업이 설립되었다. 중국-태국 협력은 광범위하며, 중국제 무기저장이 이루어졌다. 비록 중국 및 태국군이 아직까지 합동군사 훈련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 및 태국 정부는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전략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중국에 대한 태국의 의존 증대는 이 지역내

미국의 역할 감소에 대한 인식과 비례한다. 그러나 일부 태국의 아세안 인접국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태국-중국 동맹관계가 결국 불안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다.

비아세안 협력국과 아세안조약국의 군사/안보협력의 현실을 수용한다고 하면, 형식 및 범위에 있어서 제약이 적기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계속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 좌우된다. 안보협력은 역시 인도차이나 국가 및 그들 협력국(이 경우 소련)과의 사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미래 양상

만약 여기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갈등의 감소와 강대국 간의 적대적인 경쟁의 감소 그리고 분쟁(이란-이라크, 아프가니스탄, 西南

아프리카, 니카라과아,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감소추세가 있었다고 결론지으려 한다면 안보협력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그러한 연계성을 굳이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의 도전에 직면하여 아세안국가들은 신흥공업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에너지와 정책을 경주시킴으로써 부흥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안보상황은 유동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캄보디아 문제해결이후의 동남아시아, 1991년이후 미국의 필리핀 기지협정에 대한 문제, 서방 안보이익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의존성 증대(분담)의 의미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 비공산권으로서의 아세안의 중요성과 계속성을 근거로 군사 및 안보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 一笑一少一怒一老

### 하나만 알고...

피로에 지친 어떤 두 여행자가 강(江) 하류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곳 원주민 소년에게 혹시 강어귀에 상어가 없는지를 물었다.

『없어요』

하고 소년이 대답하였다.

두 여행자는 강으로 뛰어들어 신나게 헤엄치다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애야 정말로 여기에 상어가 없단 말이지?」

하고 큰소리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 물었다.

『상어는 없대두요.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상어가 와요.』

생각되는 내용이다.

비록 월남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하노이 지도부가 마스-레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비공산주의적 발전모델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한 월남의 가입은 가입 신청문제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와는 별도로 방위 및 안보에서의 협력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등의 문제에 있다.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수도 없고, 취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논의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자주」가 정책의 지도이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세안의 이익을 가급적 많이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와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쌍무협력 형태가 유지 및 증대되어야 한다. Ahmad Ramli Nor는 아세안의 SLOC(sea lines of communication)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전문화가 아세안 해양국 사이에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는 아세안의 정책에 대한 연구와 조정의 심층분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필요하다면 일본이 해상정찰과 아세안 해군사이의 군사훈련에 대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여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가능성은 군사협력에 있어서 3개국 기구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작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군수뇌부가 Bali에서 회동했다는 보도는 이러한 해양 동남아시아 국가중 핵심국가들 사이의 삼각협조관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물론 군사조약으로서 아세안의 지위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는 못할 것이다. Bali 회동은 그들 나라의 군대를 결속시키는데 이바지할수도 있는데,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방위차원에서 일어날수 있는 어떠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장래에 동남아시아 도서국가에 있어서의 방



위이익의 결속계획을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브루나이의 참여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아세안 국가들이 그들의 능력증대와 더불어 계속 성숙해가고, 지역밖의 우방국들이 새로운 우선순위를 발견해감에 따라 5개국 방위조약은 그 회원국을 확대할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브루나이는 영연방 회원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대상국이 될수 있다.

일부 論者들은 태국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렇게 되면 5개국 방위협정 그 자체의 기반을 변모시킬 것이다. 핵심적인 요인은 호주의 가입이다.

호주의 역할은 호주가 아시아-태평양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영국을 대신하는 나라로서 그리고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北호주로부터 이 지역으로의 F-18 전투기의 교체훈련배치 형태와 같은 뛰어난 방위자원때문에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

할수 있다. 5개국 방위협정의 중요성은 사실상 장래에 더욱 강조될 것이다.

넷째, 아세안 국가들이 정치적-군사적인 여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방산활동에 있어서의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는데, 이는 바로 태국 총리 Chatichai Choonhavan이 청문회에서 최근에 밝힌 내용이다.

상호협조적인 무기생산은 아세안의 독자적인 산업화노력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A-4 Skyhawk 공격기가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달성한 것과 같은 보다 강력한 엔진으로 질적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수 있게 된다.

다섯째, 아세안국가들은 일본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비록 일본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일부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일본이 많은 안보분야에서 기여할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일본의 역할은 원조와 시장개방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통하여 아세안 각국의 힘을 보강해주는 것이라는데에 의견의 일치는 있지만, 이것이 방위 및 안보분야에까지 확대될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군사훈련을 통한 협력은 3개국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3개국 관계 즉 하나의 아세안 국가와 미국, 일본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로서 중요한 정치적 존재(actor)로서의 일본의 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번째, 중국과 태국의 안보협력은 1980년대 초반에서처럼 속도가 빠른것은 아니지만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계는 동남아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전술지정학적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태국 협력과 태국의 아세안 가입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이는 물론 방콕이

一笑一少一怒一老

죽이 안맞아

자기자랑을 좋아하는 어떤 사내가 직장동료들을 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대학시절에 명성을 떨치던 야구선수였다고 떠벌이며, 한참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당시 장안에는 온통 「007」영화가 화제였을 때인데, 나는 비상한 두뇌를 이용하여 제임스 본드 스타일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선수로 유명했었지. 상대편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온갖 술책을 알고 있었다구…」

그러자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그때 타율도 0.07 이었죠』

그들 스스로의 자국 이익 보장의 필요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제는 쌍무적인 차원에 있어서 공동체의식(共感帶)이 어느 정도까지 지역안보협력에 대해 유익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의 모종의 협력이 일어날수 있다. Charan 장군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미군의 계속적 주둔에 기여하는 것은 아세안국가들간의 지역안보협력에서의 첫번째 단계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임무의 일환으로 수행 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안보개념에 아세안이 기여할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맺음말

정치 당사자들의 상호 불신이 제거되면 안보협력이 가능하다. 아세안에 있어서 협력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 기본적으로 「쌍무적인」

- 가능했으며, 지역내 국가들이나 또는 非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을 경우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아세안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본 적은 없다. 정치적차이가 있건 없건간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사이의 안보협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볼수 있듯이 안보협력은 항상 가능하다.

반면에 군사협력관계를 지지하는 주장이 강하면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호전적인 공산주의에 대처했을 때 보여준바와 같은 실무적인 안보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안보환경의 변화가 유리할 경우 안보협력을 해야될 필요성이 적어지겠지만, 그것은 이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충분치 않다. 지역안보협력은 내용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아세안으로서는 그것이 군사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육군참모총장 Try Sutrisno 가 최근에 주장했듯이 그러한 협력은 보다 많은 「유동성」을 갖고서 이루어질수 있다.

아세안이 발전해감에 따라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는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域外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참 고 자 료

- ▲ Dr. Zakaria Haji Ahmad, 「Future Patterns of ASEAN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D.J.〉, 1989년 7월호
- ▲ 朴星俊,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간 방위협력 확대」, 〈국방과 기술〉, 1989년 8월호
- ▲ 文信行, 「방콕 아시아 防産 전시회」, 〈국방과 기술〉, 1989년 7월호
- ▲ 李海旻, 「1990년대 태국의 안보와 국방계획」, 〈국방과 기술〉, 1989년 4월호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명의(名醫)의 처방

머리염색약의 부작용이 심하던 시절에 어떤 금발의 미녀가 병원을 찾았다.

미녀 : 2~3개월부터 두통이 심해 못 견디겠어요.

의사 : 옷을 벗어 보세요.

미녀 : 아픈곳은 머리라니까요.

의사 : 알아요. 그러니 옷을 벗어 보라구요.

잠시후 의사는 그녀의 나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생각했던대롭니다. 당장 머리염색을 중단하세요』